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 월호
2023



COVER STORY
Balloon Fiesta,
2023년 방문자 수 급증
(페이지 10)

Balloon Fiesta 2023
Courtesy: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Photo by Bennie Bos

CONTENTS

뉴멕시코 한인회 : 교민 여러분께 윤태자 : 2	수필 : 손자의 질문에 답하며 나정자 : 14
뉴멕시코 한국학교 : 한국학교소식 이수신 : 3	성경: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김민순 : 16
뉴멕시코 한국학교 활동/ 등록안내 : 4	산타페한인교회 창립기념 / 임직식 : 17
코원소식 박광종 : 5	국립공원: 화이트샌즈, 화석화된 발자국 : 18
VOA News :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김치의 날 : 6	수필 : 코스모스 꽃이 피었습니다 이동미 : 19
VOA News : 바이든 대통령 대국민 연설 : 7	생활 : 영어이야기 29, Vegetables 이상목 : 20
News: 이스라엘-하마스/한국 과학자 수상 : 8	수필 : 아시안 게임과 대한민국 박인순 : 22
지역소식 : 숙희가든 초청 / 리오란초 소식 : 9	뉴스 : 2022년 아시안 게임 : 23
칼럼 : 무식한 부자?! 김기천 : 10	수필 : 존귀하신 분들... 윤성열 : 24
COVER STORY : Balloon Fiesta, 방문자 급증 : 10	간증문 : 9988 234란? 김준호 : 25
칼럼 : 나비 한 마리의 효과 나정용 : 11	과학상식 : 반도체란 무엇일까? 이기영 : 27
선교 : 이스라엘 시대가 오고 있다 신경일 : 12	기행문 :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 송은숙 : 29
수필 : 걱정스러운 일 이정길 : 13	뉴멕시코교회안내/한인업소 안내/광고 : 31-34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께



윤태자

제20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안녕 하십니까?

어느덧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수확이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두달간의 한인회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9월 2일 - 한미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덴버에서 있어서 참석 하였습니다. 뉴멕시코에서는 세명의 UNM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9월 12일 - 순회영사 업무가 있었습니다. 여권, 위임장,가족관계 증명등 총 64건이 있었습니다.

9월 16일 - 풀뿌리 운동으로 믿음과 정의의 실천이라는 강연 제목으로 도

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정신에 대하여 김민아 강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 - 아버지회 식사모임에는 김두남, 위점덕 씨의 후원으로 떡과 한과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9월 27일 - 뉴멕시코 현 한인회장으로 한국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 미주 총연행사,세계 한인회장 대회,안동 진주 서산 금산등 지자체 축제에 참석 하였습니다. 여러 한인회가 지자체와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저는 10월 26일 미국으로 돌아와 11월 18일에 있을 김치축제를 준비합니다. 한국을 알리는 행사에 많은 교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11월 1일부터 장을 보고 3일에 절이고 4일에 배추 김치를 담기 시작합니다. 18일까지 십여가지의 김치를 담고 불고기 닭불고기 컵밥과 떡볶이 만두등을 참가자에게 판매 할것입니다. 김치는 모두 무료시식합니다.

11월 13일 - 미루어 졌던 동포 간담회가 있을것입니다.

12월 17일 - 오후 5시에는 한인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12월 31일 - 오후 5시에 송년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담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서로가 수고한 한해의 삶을 다독거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한인회장대회/한국방문 중의 사진



문상귀 전 회장과 윤태자 한인회장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학부모 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주 학부모 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태양열에 시달리다가 맞이한 짧은 가을이 밋지 않은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 도와 일을 해결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틀을 둔 향약, 두레, 품앗이, 계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품앗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뉴멕시코 한국학교와의 유사점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품앗이는 한국사회가 산업화 되기 전 주로 농촌에서 촌락 등의 소집단 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 노동인데, 한 예로 모내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모내기 철이 되면 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농가 씩 돌아가며 모를 심어 주는데 벼농사 중 모내기가 가장 힘든 작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품앗이로 모인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냅니다. 눈을 갈고 고르는 사람들은 최대한 흙을 평탄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모 심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다치지 않고 편리하게 모를 심도록 도와주고 못줄 잡는 사람들은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넓지 않게 신경을 씁니다. 못단을 나르는 사람들은 모 심는 이들의 편리를 도모 하고자 적정한 간격으

로 못단을 배치를 하고 가장 힘든 작업인 모를 심는 사람들은 허리 및 각종 육체적 고통을 이겨 내기 위해 간간히 막걸리를 한잔 씩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 주인은 자신의 형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새참과 점심으로 품앗이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 농가의 힘든 모내기 일정이 마무리 되고 나면 다음날은 다른 농가로 이어집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극 소수인 한인 어린이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글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상부상조의 문화중 하나인 품앗이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한글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의 학습열기를 고취하고, 학부모 겸 선생님들은 바쁜 와중에도 솔선수범하여 한글반을 맡아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감 선생님은 타고난 손재주로 art & craft 특별활동을 맡아서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매주 한시간 씩 하는 태권도 수련은 우리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으며, 뉴멕시코주 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회장 및 회원님들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손수 약과나 강정, 송편 등의 재료를 준비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생생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뉴멕시코주 한인회는 한인회관에 교실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한 책상과 청결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글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며,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는 피아노와 대형 컬러 복사기, 몇몇 전 회장님들께서는 전자칠판, 프린터, 태권도복 등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광활한 뉴멕시코 광야의 조그마한 한인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한인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글 학습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품앗이 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모든 한인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부호전환(Code-Switching, 사회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 혹은 방언을 사용할 때 그것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을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한글 교육을 제공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학기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한국학교에서 우정도 쌓고 한글도 익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교민 여러분들이 품앗이 회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이수신



한국 학교



사진으로 보는 뉴멕시코 한국학교 활동

웹사이트에서 추가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뉴 멕시코 한국학교 2024 봄 학기 한글 반 등록안내

뉴멕시코 한국학교 봄 학기 한글 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뉴멕시코에서 자라나는 모든 한인 어린이들이 배움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등록 마감일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등록금은 1월26, 27일 개강일 납부 가능)

1월 20일 이후 등록자는 late fee \$30.00 부과됩니다.

수업 요일 및 시간: 유아 및 초등학생 반: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5:20

중.고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5:20

성인반 1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 5:30-7:30

성인반 2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 한 학급당 최소인원이 5명입니다. (5명미만일 경우 통합 또는 취소됨)

- 수업기간: 1월 26일부터 5월 4일 (APS 봄 방학주는 수업 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문의 및 상담: 이 수신 교장

문자 및 전화: 505-515-4677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Web: kaanm.com (홈페이지 상단 Language school)

- 오리엔테이션 및 학급편성(유아, 초등, 중고등반): 1월27일 토요일

오후 2:00-5:20 학급 편성 후 수업 시작합니다.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 후 체크 또는 머니 오더 동봉 후 우편으로 납부 (pay to the order of: KANM, 체크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 요망, 등록금은 개강일 납부가능)

등록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 혹은 KANM.com 에서 프린트 가능.

- 환불 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학교에서 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For English version of this AD, visit the website voice.kumcabq.com)

KOWIN소식

코윈(KOWIN)소식

박광종

뉴멕시코 KOWIN 지부장
미 남부지역 코윈 담당관
하이랜드대학교수

어느덧 가을의 풍성함과 아스핀 나무의 노란색 단풍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의 가을은 부산에서 개최된 2023년 코윈(KOWIN)대회에 코윈 미남부담당관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년차 뉴멕시코 지회장으로 이제는 텍사스, 애틀란타, 뉴멕시코, 아리조나 네 지역을 담당하는 미남부담당관의 직책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한국문화를 알리고 차세대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코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OWIN대회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번째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10년 8월에 개최한 이후 13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KOWIN 새롭게 ON다'라는 주제로 열린 KOWIN 대회에

세계 23개국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한인여성 지도자 360여명이 참석해서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힘쓰시고 차세대들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게 수고하시는 한인들의 노고와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30년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하시는 분들과 해외에서 온 150명의 코윈멤버들을 위해 한복명장이신 권정희선생님의 한복선물로 연회장을 한복의 미로 물들였던 것들도 추억의 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히 제 11기 담당관들을 초대하여 2023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대회와 연계한 '제주 교류협력행사'를 개최하였고 "여성리더에게 미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 제가 제11기 코윈담당관을 대

표해서 해외여성지도자로서 도전과 차세대들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발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11기 담당관들과 제주 여성리더간 연대를 위해 마련된 팀별 네트워킹 원탁회의에서는 각자 분야에서 직면한 장벽과 이를 뛰어넘기 위한 경험 및 시사점 공유 등 다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모든 행사를 주관한 제주도청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여태까지 알아왔던 제주도가 신혼여행지가 아닌 여성의 강한 의지와 삶의 역군인 해녀들의 역사와 유래를 배웠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많은 여성지도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뉴멕시코지회는 11월 18일날 김치축제에서 한국문화의 미를 전하기 위해 사군자와 민화를 배워보고 붓으로 이름을 써보

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12월에는 차세대들을 위한 코윈캠프와 차세대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알리고 차세대들의 한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코윈은 노력할 것입니다. ■



VOA 뉴스

미 하원의장 공석 3주 만에 마이크 존슨 의원 선출



(사진)마이크 존슨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장이 2023년 10월 2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장 공석이 약 3주째 이어진 가운데,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뽑힌 마이크 존슨 의원이 25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연방 하원 전체 표결에서 총 429표 가운데 220표를 득표해 새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원 220명 전원은 존슨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새 의장이 선출된 건 이달 초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해임된 지 20여 일 만입니다.

존슨 의원은 이날(25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제56대 하원의장직에 올랐습니다.

51세의 존슨 신임 하원의장은 2016년 루이지애나를 지역구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 출신입니다.

또 '친트럼프' 성향으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강경 보수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존슨 신임 의장은 동성 결혼과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에 반대하며, 2022년 교내 성정체성 관련 논의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또 미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도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담은 안보 예산안 통과를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등에 사용될 1천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7일까지 의회가 본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부분폐쇄(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2023.10.26 ■

지역소식

한인회 주최 김치축제

11월18일(토) 장소: 9607 Menaul Blvd NE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K-김치 세계연대
김치 나눔축제

**K - KIMCHI
FESTIVAL**

2023/11/18 SAT.
11 AM - 4 PM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CONTACT US
(505) 271-1777
INFO@KAANM.COM

한글학교
HW HANGUL LANGUAGE SCHOOL

KOWIN
재외동포청

WWW.KAANM.COM

‘김치의 날’ 연방하원 결의안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고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10월26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등 일부 주(州)에서 김치의 날을 선포했지만, 미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채택되도록 의회가 결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원에 상정된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은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과 미셸 은주 스틸(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의 마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한국명:김순자), 앤디 김(뉴저지) 의원 4명이 지난 4월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인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

바이든 대통령, 대국민 연설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미 안보에 필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19일 (목요일)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관련기사로 VOA Korea 방송기사인 '지구촌 오늘'의 일부를 전재해 소개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하 생략)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TV로 전국에 방영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미국은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있어서 양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모두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연계시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바이든 미 대통령] " Hamas and Putin represent different threats, but they share this in common. They both want to completely annihilated in neighboring democracy, completely annihilate it."

기자) 네. 하마스와 푸틴이 다른 위협을 보여주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그들이 이웃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꺾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꺾어버리려 한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분자들이나 독재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들이 더 많은 혼돈과 파괴를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돌아오는 위협이나 비용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말 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일 의회에 긴급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런 지원은 앞으로 몇 세대에 걸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좋은 투자라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녹취: 바이든 미 대통령] "It's a smart investment that's going to pay dividends for American security for generations, help us keep American troops out of harm's way, help us build a world that is safer, more peaceful, more prosperous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진행자) 네... 바이든 대통령... 대대로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똑똑한 투자라고 말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지원은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걸 도울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할 긴급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네. 대략 1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예산에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인도적 구호 지원, 그리고 남부 국경 관리 등 항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항목별로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인도태평양에 70억 달러, 그리고 인도적 구호에 약 100억 달러가 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VOA 해외소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군 장병들이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스라엘군 당국이 31일 공개한 사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의 무력 침공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10월 7일 이른 아침, 하마스 무장 단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5000발의 로켓 포격과 함께 차량을 통한 이스라엘 영토 침입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대교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슈퍼노바 초막절 행사’ 음악제에서 발생한 학살을 포함하여, 최소 1,3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다.

11월1일 VOA 뉴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은 “지난 하루 지상작전 동안 다수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제거됐고, 테러리스트 목표물들과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군은 또 하마스 대전차미사일과 로켓 발사 진지 여러 곳, 지하터널 내 하마스 시설 등 약 30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30일) 텔아비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진주만 폭격이나 9/11 테러 이후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10월 7일의 끔찍한 공격 이후 하마스와의 적대행위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10월30일)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8천30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지역소식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한국인 과학자, 두개의 상을 수상

알버커키 저널의 지난 10월23일 월요일 Business Outlook지에 의하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세사람의 연구원이 연구소에서 주는 우수상인 Laboratory Fellows' Prize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상자는 재료 합성 및 집적 장치 그룹의 YU SEUNG KIM 연구원과 에너지 및 천연자원 보안 그룹의

수상자 김유승 박사

RODMAN LINN, 국가 안보 및 국방 프로그램 사무국의 KIRSTEN TAYLOR-MCCABE의 세사람이 펠로우즈상을 수상했다.

한국인으로 수상한 김유승 씨는 2003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 와서 연구원이된 후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 전지 (fuel cells) 및 전해조 (electrolyzers)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료를 개발한 공로로 연구 부문 펠로우즈 상을 수상한 것이다. 재료 상호 작용, 합성 화학 및 전기화학적 특성화에 대한 기여로 잘 알려진 김 박사의 연구결과는 연료 전지 커뮤니티에 큰 공헌을 하여 세계적으로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연료전지는 공기 중의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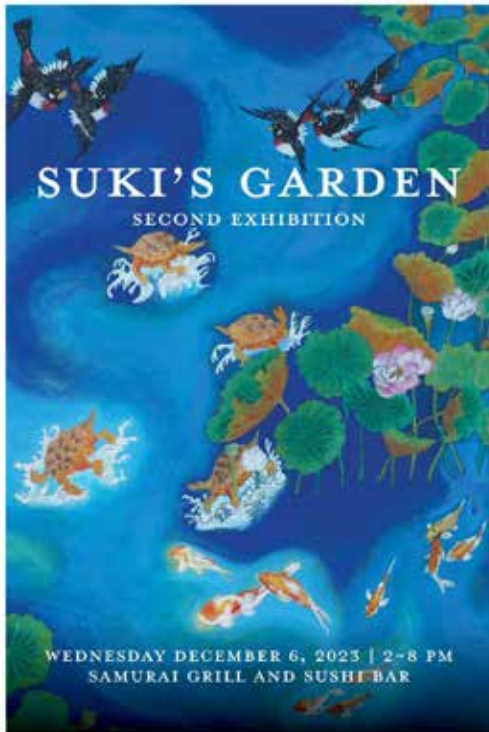
또한 지난 5월30일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김유승 씨는 바텔(Battelle)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발명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상은 바텔연구소 내의 발명가를 포함하여 바텔이 관리하는 국립 연구소 (Los Alamos연구소와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Idaho National Laboratory,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및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발명 업적을 표창하기 위해 바텔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바텔은 1960년대 중반 한국의 과학기술개발에 큰 기여를 한 한국과는 인연이 깊은 연구기관이다. 1965년 5월 18일, 박정희 대통령과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의 합의에 의해 1966년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되었는데 설립기초 작업과 자문을 바텔기념연구소가 수행했었다. ■

지역소식

정원지기가 되기로 한 속희 가든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와인을 마시면 하루가 행복해지고 결혼을 하면 일주일도 행복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원지기가 되어 심고 가꾸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 합니다. 속희 가든은 그 설레임과 기쁨으로 붓을 들고 호기심으로 흙을 반죽하며 행복을 빚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행복에 빠져 있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평생을 행복할 수 있는 정원에서 마법을 경험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3.12.6 (수) 2-8pm
장소: Samurai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Blvd. NE ABQ 87111

You're Invited

As I walk along the hill crest in the dry desert field, I greet the beautiful, unnamed small wild flowers. They all have a unique beauty of their own. I want to adopt them all into my garden: Suki's Garden. They bring my heart richness and fulfillment."If you drink wine, you will be happy for a day. If you get married, you will be happy for a week. If you want to be happy for the rest of your life be a gardener." This wise man's story became a small seed of joy in my heart! Pick up the brush with excitement, knead the soil with curiosity, and hope to see this beautiful life! I have been so lucky in dreaming, planning, and making a difference, however small, with Suki's Garden. So I turn the baton to you, I want you to experience a wonderful life of your own. I invite you to join me in Suki's Garden! Sincerely, Sincerely,

Suki Kim

리오 란초, 남서부에서 살기 좋은 곳 10위

미국내의 살기 좋은 중소 도시를 조사하여 순위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Livability.com 에서 지난 9월에 리오란초를 미국 남서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10위로 선정했다고 리오 란초 옵서버(Rio Rancho Observer) 신문이 보도했다. Livability.com에 따르면, "미국 남서부 지역은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문화유산, 독특한 전통의 조화로 매력적이고 다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요리, 예술, 건축물은 이를 반영하며, 뉴멕시코 그린 칠리 스투와 같은 요리와

어도비 스타일의 건물은 독특한 유산을 입증합니다."라고 미국의 남서부를 소개했다. 이어서 리오란초는 매년 거의 300일 동안 햇빛이 비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충분한 취업 기회, 우수한 공립 및 사립 학교를 제공하여 젊은 가족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소개했다. Gregg Hull 시장은 다음과 같은 댓글과 함께 해당 기사의 링크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매우 자랑스럽



고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지역사회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Rio Rancho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0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서부 지역에서 10위권에 도달했습니다."산타페(21위)와 라스 크루세스(24위)는 뉴멕시코의 도시로 상위 25위 안에 들었다. ■

칼럼

무식한 부자?!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광야 소리 원고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쓴 글들을 뒤져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기록한 날짜를 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 10월에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당시 아직 70대이신 김준호 장로님과 식사를 할 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이지요. 테니스가 처음 한국에 소개될 때입니다. 한 부자 양반이 서양 학문을 공부하고 온 두 사람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리 저리 튀는 공을 쫓아다니며 채로 쳐대는 두 사람이 아마도 안 되어 보였던가 봅니다.

“저 사람들, 뭘 저렇게 애를 쓰나, 대신 다른 사람을 쓰면 되는데 말이야.”
운동이란 천한 것, 없는 것들이나 하는

짓이란 생각, 부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해먹고 살았던 세상이었지요. 결국 이런 무식한 생각이 운동 결핍으로 인한 병을 불러들이고 단명하게 된 것 아닌가요?

부자 집에 아들이 태어났지요. 대를 이어가야 하기에 어릴 때부터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일 년에 몇 번도 먹어보기 힘든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늘 기름기가 넘치는 식단이었지요. 오늘날로 지방이 많은 고기를 먹어댄 것입니다. 좀처럼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지방 끼 있는 음식만 먹어대니 건강할 리가 없었지요. 배터지게 잘 먹는데 왜 그리 병치레를 하는지 지금이야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지요.

옛날 부자집 자녀들은 왜 지능이 낮았

는지 아세요. 그냥 놔두면 똑똑하게 잘 자랄 아이인데 엉뚱한 것을 먹어댄 것입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몸에 좋다는 인삼, 산삼, 녹용 등 좋다는 것이면 아무거나 대려서 애에게 먹인 것이 원인입니다.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지만 사슴 뽕에는 방사선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녹용을 먹을 경우에는 그 방사선 물질이 뇌로 들어가서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요함” “안락함” 등이 “무지함”과 어울릴 때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텍사스로 이사 가신 김준호 장로님과 김수영 권사님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

Balloon Fiesta, 2023년 방문자 수 급증

금년 제51회 알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는 좋은 날씨와 금환일식 덕분에 기록적인 방문객이 모인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10월7일 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968,516명의 방문객이 모여 기록적인 방문객 유치를 달성했다.

벌룬피에스타(Balloon Fiesta)의 전무이사인 Sam Parks씨는 “수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이 매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것은 날씨가 협력해준 탓으로 훌륭한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올해 피에스타 참석자 수는 지난해 82만8800명에서 17% 증가된 수치이다. 2021년에는 이 행사에 783,866명의 손님이 모였었다.

10월 14일에는 알버커키 바로 위를 가로지르는 금환 일식(annular solar eclipse) 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벌룬 피에스타 공원에 모여들었다.

2023 벌룬 피에스타에는 107개의 특별한 모양(special shape)의 벌룬을 포함해 546개의 열기구와 16개국을 대표하는 629명의 조종사가 참여했다.

■



Courtesy: AIBF Photo by Victor Banta



Courtesy: AIBF Photo by Triston Garcia

칼럼

나비 한 마리의 효과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지구 물리학 내지 기상학에서는 ‘나비 한 마리의 효과’ (A Butterfly Effect)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Mexico의 한 숲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만든 파장이 증폭되어 드디어 미국에 Hurricane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작은 차이’ ‘미세한 변화’ ‘사소한 사건’의 파장이 증폭되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자아낸다는 이론입니다.

위의 나비효과 이론은, 종교, 사회, 문화 등 온갖 것의 중심지였던 수려하고 화려했던 Jerusalem 성이 오직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렘 5:1) 설명이나 해 주는 듯합니다.

단 열 사람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 고모라 성에 비하면 너무나 여처구니가 없는 일 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봤자 세상이 변할 리 없으니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튀지 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스스로 변명하며, 스스로 뒤로 물러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의인, 아닌 한 사람의 의인을 주목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사람을 보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심판까지 철

회하셨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이며, 그 죄악을 회개하는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회개보다는 핑계를 대기가 바쁘고, 반복하여 넘어져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각성으로 깨어나야 비로소 자기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또다시 세상의 악함과 죄악 속에서 몸부림 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살던 John Wesley는 자기 성찰을 위한 22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놓고,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철저히 성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 원주민 선교 여행을 완전 실패, 야밤 도주하여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도 산더미와 같이 휘몰아치는 파도가 주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철저히 패배자가 되는 경험을 하였지만, 강력한 Alders gate 신앙 체험 후 다시 일어나 말을 타고 지구를 열 바퀴 돌 만한 거리를 달리며 전도하여 마침내 감리교 운동의 선구자가 된 것은, 거듭되는 실패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매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 이

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어린 지속적인 성찰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이렇듯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1857년 9월 23일 New York Fulton 교회 3층에서 Jeremiah Lanphier라는 한 무명의 청년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곧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1년 후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의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는 물론 음악 Hall, 극장, 심지어 소방서 건물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평신도로부터 시작한 미국의 3차 대각성운동의 시작 이었으며, 정작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한 그 유명한 Dwight L. Moody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구두 판매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를 쓰시어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등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 마지막 부분을 지나면서, 2023년을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성찰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새해

<15 페이지로 계속>

선교

교회시대가 끝나가고 이스라엘 시대가 오고있다.

(로마서 11장 25,26절)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사도바울의 서신인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서로 말할 수 있겠고 핵심 개념들은

- 1. 구속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 하셨다)
- 2. 속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내릴 죄의 징벌을 제거 하셨다)
- 3. 칭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셨다)
- 4. 성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우신다) 그 외에 *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글의 주제인 ‘이스라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26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버림당했는가? 여기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남은 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마태 13 : 43절) 잠언서 12장 21절에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 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모두가 의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 초부터 30년 동안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어 6만여 개의 교회로 늘어나고 전 세계에 선교사는 미국 다음으로 제 2위로 파송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3년여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만 5천여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수의 교회가 문을

닫혔을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성서 마지막 장 말라기 (Malachi) 1장 10절에는

“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온 세계의 이방인의 교회문을 칭하는 것으로 종말 시대의 교회의 배도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어서 24장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모두 sign of the End of the age(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전 10월 7일 토요일 새벽에 하마스(Hamas)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테러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와 CIA를 무시하고 남부 가자(Gaza) 지구에서 철조망을 부수고 이스라엘로 침공 하여 무자비 하게 천오백 명의 시민을 살상하는 현대판 9.11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be secure) 재 5차 중동전쟁으로 차단지 않도록 기

도 해야 합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3년 10월 8일 안식일에 욘키푸르 (Yom Kippur) 전쟁으로 온 아랍국가와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가?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 장 15, 16, 17장)
둘째로 마태복음 24:35 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Word of God)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2절)
셋째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 (출애굽기 4:23절) 로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시니라 .

아멘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새로이 탄생했을 때, Christian(개신교) 교회가 하나도 존재 하지 않았는데 한 73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170여 개의 교회가 생겼으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구원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이사야 55장 5절)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겠

<15 페이지로 계속>



신경일
(전)UNM병원
Chaplain 목사
Los Alamos Medical
Center 근무

수필

걱정스러운 일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회의가 2023년 3월 20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렸다.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대처하기 위해 세계 기상 기구 WMO와 유엔 환경 계획 UNEP 등이 공동으로 1988년에 설립한 국제 협의체다. 5~7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내놓는 보고서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정부 간 협상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길잡이로 쓰인다. 이번의 제6차 보고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추세, 기후 변화가 미칠 장기적 영향, 2030~2040년까지의 단기 대응책이 제시되어 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으며,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된 방식은 온실 가스 배출이라는 사실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기온 상승이 초래할 염려스러운 일들이 나열되었다. 37쪽에 달하는 대요의 중간에는 회피할 수도 복구할 수도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되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홍수 같은 갑작스런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한 재앙이 지구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시점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어떻게 닥칠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 (known unknowns)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시인하고 있어서 염려스럽다.

난류는 북부로 한류는 남부로 이동하여 지구의 열을 전달하는 중요한 바닷물의 흐름을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라고 부른다. 그 해류

는 대서양의 온도와 그에 따른 북미의 기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한류가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를 가두기 때문에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지구 온난화의 방지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가 북대서양 대류에 이상을 초래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 해류가 2100년 이전에 갑자기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것이 붕괴되면 기상 상태가 크게 바뀌어 사람의 활동이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 분명하다.

해수면 상승의 크기와 범위도 중요한 문제다. 기후 변화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온실 가스를 배출하면 2100년에는 평균 해수면이 1미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넓은 지역에 두껍게 덮여 있는 얼음의 층이 급속하게 녹는 바람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잘못하면 2미터나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페루 등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는 홍수는 갈수록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태평양의 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언제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인가 걱정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인데…….

지구가 더워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더 많이 당하게 된다. 생태계의 손실, 지역 기후의 급격한 변동, 시설의 파괴 등으로 세상이 온통 뒤바뀌고 말 것이다. 그런 재앙이 나타나는 시기가 급변점이다. 보고서는 기후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상의 예측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도 서술했다. 식량난이 영농 방법을 바꾸고, 바뀐 영농 방법이 다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 가지의 변화가 다른 변화와

맞물리면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

희소식도 있어 기대해 볼만하다.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온의 상승을 막는 데에 더 많이 투자하는 추세다. 여러 나라들이 배기 가스의 양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애쓰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 제도에 의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만 입찰할 수 있게 된다. 미국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 부담을 지워 수출과 입찰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들 계획이다.

핵융합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도 방출하지 않으며 무한대의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반응이다. 거기서 얻는 에너지로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반응인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하기가 어려워 ‘꿈’으로 생각되어 왔다. 청정 에너지로의 변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을 맞아 국제 차관단이 구성되어 거대한 핵 실험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2022년 말에는 몇 군데의 연구소에서 아직 미미하지만 ‘순에너지 확보’에 성공하여 실리콘 벨리 거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꿈의 실현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살만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확보할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

<15 페이지로 계속>

수필

손자의 질문에 답하며!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손자의 질문에 답하며! 나정자 사모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해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던 동북부 지역 은퇴목사
회가 다시 모였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에다 허연 머리에 어깨가 꾸부정해지
신 노 목사님들이 혹이나 예배 시간에
늦을세라 숨을 몰아쉬시며 붉어진 얼
굴로 들어서신다.

“우리가 있는 한 전해야 할 우리의 신
앙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조영준 목
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었다. 1960년
도 도미하셔서 박사학위 마치는 데 12
년이 걸렸고 35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던 중 심중 깊은 데에서 잔잔
히 “나이도 많아지는데, 아직 힘이 있
을 때 그저 10년 정도 조국에 가서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계속되더라는 것. 하
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12년
동안 정동 감리교회 목회를 맡겨 주셨
더라는 말씀이었다.

팬데믹 동안 여러분들이 소천 되시었
고 신학교 동기는 이제 미국에 3분 남
았고, 이번 40일 정도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가까이 기도회 친구로 지내던 고
등학교 동창 4명을 만나고자 했지만,
그 4명 중 1명은 치매, 또 하나는 다리
를 못 쓰고, 또 한 분은 중풍으로 … 등
등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왔노라고
하신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일까? 더듬어 보게 되었다. 비록 우리
내외도 기울어진 나이가 되어 일그러
진 불균형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소위
그 “헌신”이란 마지막 불을 태워 볼 수

있을 것인가?!

문득 루브르 박물관에 방탄유리로 보
호받고 있다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 웃는 것 같기도 하구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한, 흠이라고 하
면 단지 눈썹이 없다는 것뿐이라는 그
림 모나리자의 미소! 뿐인가! 프랑스
정부 추산은 수조 원의 돈으로 평가된
다고 하며, 작작 10여 년 전엔 네델란
드 암스텔담 대학 연구팀의 연구 대상
이 되어 인간 감정을 인식하는 소프트
웨어를 통해 모나리자의 입술과 눈가
의 주름 등 얼굴 주요 부위의 움직임
을 수치화해 분석한 결과 전체표정의
83%는 행복함, 9%는 불쾌함, 6%는 두
려움, 3%는 분노 등이라는 연구 결과
까지 등장! 평균 연간 그 그림 방문객
이 천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 웃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은 눈썹 없
는 얼굴의 미소가 과연 고가의 연구 대
상까지 되니 이걸 과연 흠이라 할 수
있을까?!

한데 그 예배 후로 가끔 헌신(?)이란
씨 알맹이 하나가 우리 내외의 얘기 속
에 툭툭 끼어들곤 했다. 분명하게 그려
지는 것은 없지만 분명 눈썹 없는 모나
리자의 미소 같은 거였다.

그 미소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지방 감
리사의 부탁을 받아 지난 7월 첫 주부
터 3개월 동안 우리는 펜실베니아까지
‘그 이름 예수’를 전하느라 혼신을 불
태워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부대끼며 함께 살아온 세
월 덕인지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도 하
루 종일을 무난히 지날 수 있는가 하면

이제는 말없이도 99% 서로 원하는 것
잘 맞추어 사는 편이건만, 집에서 펜실
베니아 까지 편도에 110마일을 다니
려면 운전하는 남편 못지않게 뭘 애기
를 해야 줄음에 잡히지 않겠기에 조수
석 자리에 앉은 나는 계속 뭘가 정신
돌릴 얘기를 지혜롭게 해야 하는 고충
(?)이 남편이 준비하는 설교만큼이나
잘 짜여져야 하곤 했었다.

그러던 중 3개월 미션을 마쳤다.

담임목사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교
우들을 때 놓고 오자니 냉정하다 못해
마치 못 할 일하고 오는 듯 마음이 편
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We missed you, 할아버지!” 손주의
전화였다.

“음, 그래 나도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
었다. 오늘 저녁엔 ‘할아버지 할머니
3 month mission done’ 짜장면 어때?
오케이?”

그리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3 month
mission done dinner를 잘 마치고 나
오는 참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
째가 툭!

“할아버지는 설교하셨고… 그런데 할
머니 what did you do there?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어?
난 그냥 할아버지 하구 툭(talk) 툭툭
했지!” 했다.

뭘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나는 늘 이렇다 하게 하
는 게 없어 내심 늘 변변치 못했었는
데… 앗! 그보다 더 금방 떠오른 것
은 아이고, 이 아이와의 소중한 찬스를
놓치고 말았네 하는 아쉬움 이었다.

이 아이의 질문은 ‘할아버지의 3 month mission’에서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3 month mission’이라 한 데서 생겨난 것이었으니 “Being with him was my mission!” “이라고, 나의 할 일은 늘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대답 같지 않은 대답!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대답을 했어야 했을 꺄꺄꺄이었다.

이때다! 항상 적시에 분명한 표현을 못하는 나같이 부족하고 흠스런 사람들을 위해 생겨나고 회자되어 오는 말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그럴 수도 있다는 듯 꺄꺄꺄에게 손사래를 쳐 주는 게 아닌가!

잘 알려진 서양 철학자는 청중의 절반에게서 박수받지 못하는 부족한 말솜씨가 행복의 조건이라지 않았던가! 그랬다. 행복의 조건은 비단 부족한 말솜씨뿐 아니라 부족이면 널려 있는 게 행복이다. 늘 흠 많고 부족하고 모자랐기에 엉뚱하리만큼 수준에 못 미치는 에피소드들로도 감격하며 해가 뜨고 지던 서울 북아현동 산꼭대기 시절! 방문을 열고 나오면 다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쏟아지던 별들의 세계 산동네에서 차원이 다른 신비의 세계를 두루만져 볼 수 있었으니! 그 듀엣을 어디다 비기랴!

깨진 물 항아리가 지나다니던 길가엔 어느 날 갖가지 파랭이들이 눈 비비고 나와서 웅기종기 도란도란 깔깔깔 얘기가 풍성하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반가웠던가! 깨진 물 항아리 틈새에서 찢끔찢끔 새어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메말라 굳어버린 길가를 축축하게 적시니 파랭이 뿐이라 작은 미벌레까지 숨 쉬며 등장케 하니 만물의 원시적 축제까지를 꿈꾸어 볼 만하지 않은가! 결코 우리가 보는 흠이란 것들은 흠이 아니요, 부족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계속 보완하시고자 남겨 놓으신 그분의 싸인 이려니! 어찌다 “흠과 부족”이 발견된다면 흠뻑 끌어안고 응원할 품목이다. 아껴둔 식량처럼 소중히,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낼 잔칫날이 분명 있으리라.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 누군가의 삶의 계기가 되어 주는 일 일진대, 오늘은 딱 떨어지지 못하는 ‘할미의 부족’을 심은 날이 되었나 보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원숙한 모습으로 보충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으며 머리를 숙인다. 할렐루야! ■

<나비 한 마리의 효과>

11 페이지에서 계속

2024년을 맞이하는 최선의 준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성에서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나는 어떤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권능과 지혜로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본래 나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을 배제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아직도 나의 소견에 맞게 교만한 삶을 영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심각하게 성찰하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었던 나의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를, 공연히 들뜬 마음으로 정신없이 흘러 보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

<걱정스러운 일>

13 페이지에서 계속

는데 우리의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온실 가스 배출을 피하거나 감축하는 기술 개발로 경제적 효과를 내는 방식과 지금까지의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통합하는 탄력적 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늦어 버리기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배기 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도 포집해야 한다. 자연은 광합성이라는 기술을 창조하여 식물로 하여금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서 토양에 저장하게 만들어 주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더 야심찬 공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이스라엘시대...

<12 페이지에서 계속>

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입니다
Mananatha!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Amen)

P.S. 저희들 부부는 1년전부터 이스라엘 언약 순례 기도팀으로 발탁되어 10월 30일에 텔아비브(Tel Aviv)에 도착하여 Jewish Christian Church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계획이었는데 10월 7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다 취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maranatha. Jesus ■

성경

기독교 윤리 (2) 마 5: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팔복의 첫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 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복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예외없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는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난함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부와 명예가, 세상의 쾌락이 그 심령의 가난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세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의 가난함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교만으로 가득칩니다. 심령의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

식되어 소유가 다 풍부할 그 때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교만함이 찾아오기 얼마나 쉬운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2.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발견한 숨은 보배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진주 장사가 평생에 좋은 진주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인생에서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천국을 발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극히 값진 진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눈에만 발견됩니다. 숨은보배라는 책은 조선시대 유명한 맹인 점장이 백사겸의 하나님 나라 발

견 이야기입니다. 백사겸은 눈치와 짐작으로 점을 치는 조선 최고의 점장이었습니다.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물 밑듯이 찾아오는지 돈은 자꾸 불어갔고 곡식도 쌓이고 패물도 쌓이고 이렇게 쌓이는 것에 비례하여 마음에 공포심도 쌓여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 보려고 애를 쓰지만, 양심에 공포심이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서 번 돈으로 고아도 돌보고, 구제도 하지만 마음의 불안함이 커져가고 양심의 소리에 뼈가 마를듯한 번민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백사겸은 한 전도자의 예수 믿는 도리가 적힌 작은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숨은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숨은보배를 발견하곤 23년간의 점쟁이 일을 내려놓고 사람을 속이던 점치는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내가 읽어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모든 염려가 다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3. 심령이 가난함을 잃어버린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심령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14절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보다 조금도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시합니다. 그의 교만한 기도는 감사함이 있지만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토색, 불의, 간음, 죄인 처럼 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라 자부합니다. 일주일에 두번이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로 섬유 산업과 금융이 발달하고 아주 좋은 의료학교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로 말미암아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고 풍요롭고 다 가진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진단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요하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주 미지근합니다. 마치 근처의 두 도시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 같은 물이 나오는 히에라폴리스와 냉수처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골로새 교회와는 다르게 파이프를 통해서 미지근한 물을 공급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마시면 토할 것 같은 영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령이 부요한 교회가 되어 회개도 없고 주를 향한 열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한지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부요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치료책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

산타페한인교회에서 창립기념예배/임직식에 초대합니다.



INVITATION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귀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타페 한인교회의 창립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 일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
이에 자리를 빛내주시사 초청의 글을 보냅니다.

임직자

집사안수 이민성, 정순이, 진 호

일시 11월 5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310 Rover Blvd, White Rock, NM 87547

문의 (505) 699-4775



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한 교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부요함이 필요하며, 이상승배로 얻은 물질적인 부로 만족하지 말고 흰옷을 사서 입어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정체성을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신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라오디

게아 교회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불타는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의 복을 구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화이트샌즈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발자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간은 언제부터 살고 있었나요?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반적인 대답은 아마도 뉴멕시코주 클로비스에서 처음 발견된 클로비스 포인트(Clovis points)로 알려진 초기 석기시대 유물에 기초로 한 14,000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화이트샌즈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인간 발자국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아메리카 대륙의 인류 역사가 더 오래되는 21,000~23,000년 사이 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되어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연구원 중 한 명인 캐슬린 스프링거(Kathleen Springer)는 “과학자들은 인간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현재의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발자국 분석이 정확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퇴적층 노출 작업 중인 연구현장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서는 오테로(Otero) 호수 인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화석이 된 발자국이 많이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화석

이 된 발자국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내고 있습니다.

수만 년 전, 빙하 시대에 툴라로사 분지(Tularosa basin)에는 거대한 오테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후는 지금과는 달라서 초목이 무성했습니다. 초목이 무성한 이 지역은 빙하 시대의 큰 동물들이 살기에 아주 알맞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낙타, 컬럼비아 매머드(mammoths), 땅나뭇잎보(ground sloth)와 같은 채식 동물들이 툴라로사 분지의 풀과 나무를 먹기 위해 오테로 호수에 왔습니다. 이로 인해 무서운 늑대(dire wolf)와 미국 사자로 알려진 육식동물 포식 동물 역시 모여들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발자국은 오테로 호수 습지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결국 화석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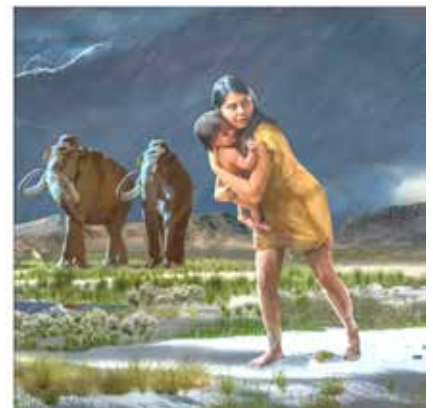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북미와 툴라로사 분지에서 최소 23,000년 동안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 전에는 인류가 북아메리카에 대략 13,500~16,000년 전에 도착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가 육지로 연결되었던 시기에 아시아에서 육지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믿어왔던 시기보다 7천년 전에 이미 인류가 미 대륙에 살고 있었다 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샌즈국립공원 서쪽 플라야의 석고 토양에 도랑을 파서 표면 아래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인간의 발자국이 발굴 현장 표면 아래의 다양한 퇴적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자국 위와 아래에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사용하여 분석된 고대 풀 씨앗(Ruppia

cirrhusa)이 있었습니다. 보정된 날짜는 22,860년 전과 21,130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에 과학자들은 여인의 발자국이라고 생각되는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자국 화석은 그녀가 거의 1마일을 걷는 모습을 남겨주었고, 때때로 그녀 옆에 유아의 발자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걸을 때 가끔 아이를 내려놓고 함께 걸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짐을 지고 가는 무게가 늘면서 발자국은 넓어지고 진흙 속에서 미끄러진 흔적도 보입니다.

키와 걷는 속도로 볼 때, 본 연구의 발자국은 대부분 청소년(teenagers)과 어린이의 발자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언스(Science) 저널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그



발자국 화석의 여인 상상도

당시 생활은 노동 분업으로, 성인은 숙련된 노동 작업에 일하고 '어린이를 돌보는' 작업은 청소년들이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틈에이지 아이들과 동행하며, 많은 발자국을 집

<19 페이지로 계속>

수필

코스모스 꽃이 피었습니다.



이동미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집사

옛날에 학교 등교길에, 코스모스가 흐부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등교하기를 좋아 했습니다. 산골이라 작은 산을 두개 넘고 개울을 건너서야 학교가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개울이 넘쳐 있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걸어서 한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아버지께서 가꾸신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워낙 무서웠던 분이래 학교에서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 초, 아직도 COVID-19 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때, 셋째아이 교환학생으

로 한국에 가는데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두주간 꼬박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밥도 챙겨 드리고 옷도



갈아 입혀 드렸습니다. 하루는 큰언니가 일이 있어서 혼자서 아버지 몸을 닦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 앞에서 옷을 안 벗으시려고 했습니다. 결국 늦게 큰언니가 오고서야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로 부터, 그 길을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벌써 기억이 희미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꽃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게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했다고 큰언니로 부터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무서워서 말도 잘 못한 막내딸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서 말입니다.

되돌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힘든 때에 한국을 방문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와 두주를 꼬박 같이 지내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셨습니다.

오늘도 코스모스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코스모스를 볼때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오십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이에 걸맞게 책임있는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할 일을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화석화 된 발자국 18 페이지에서 계속>

단적으로 남긴 것 입니다.” (Bennett, 2021)

화이트 샌즈(White Sands) 전역의 발자국은 멸종된 빙하기 동물과 공존하고 상호 연관된 생활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한 세트의 발자국은 인간이 거대한 나무늘보(sloth)를 추적(stalking)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는 나무늘보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인간 발자국 화석을 통해 입증됩니다. 이들은 사냥을 하던것으로 추리됩니다.

빙하 시대에 거대 동물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기후 변화가 큰 영

향을 미쳤다는 점에 일치합니다. 한때 무성한 초록색 식물이 풍부했던 환경은 해당 지역이 강우량이 적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샌즈의 화석화된 발자국은 아마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빙하기 시대의 멸종된 동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화이트샌즈는 단순한 모래언덕이 아닌 고대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박물관으로 생각됩니다.

(번역: 이경화, 참조 원문: <https://www.nps.gov/whsa/learn/nature/fossilized-footprints.htm> ■

영어이야기 29

Root Vegetables and Dark Leafy Vegetables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건강식단(healthy diet)은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몸이 움추러지는 겨울철에도 과일과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여야함은 두말할나위 없습니다. “diet”은 정규적으로 먹는 식단을 뜻하기도 하고, 살을 빼려고 식단조절하는 것도 뜻합니다. She’s on a diet. (그녀는 살을 빼려고 diet 중이다)

건강식으로 인식되고있는 Mediterranean diet (지중 해식 식단)은 채식주의식단(Vegan diet)과 비슷하지만 오메가 3가 풍부한 고등어같은 fatty fish와 해산물도 즐겨먹고 지방성분은 주로 식물성지방인 Olive oil을 사용합니다. 겨울엔 바깥에 나가 햇볕(sunlight) 쬐는 날도 줄어들어 Vitamin D가 풍부한 계란 노른자위(egg yolk), 해산물(sea food), 곡물(grains)과 비타민 D가 첨가된 우유를 정기적으로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엔 원래 Vitamin D가 없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는 Vitamin D가 첨가된 (Vitamin D fortified milk) 우유입니다. “Fort”는 Fort Gaines처럼 군대의 요새를 뜻하는데, 동사격인 fortify는 요새화하다, 즉 강하게하다의 뜻으로 우유나 Cereal(씨리얼)에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Vitamin D등을 넣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단순히 비타민이 첨가된 것으로 말합니다.

“Processed meat”하면 정제된 고기를 뜻합니다. 우유에 allergy (엘러지: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우유대신 Vitamin D가 함유된 음식을 고루 섭취하는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엔 Root vegetable(뿌리채소)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Carrot, Beet, Yam, Parsnip등 뿌리채소는 Vitamin A, B, C가 풍부할뿐 아니라 철분(iron)과 섬유질(fiber)도 많고, 요리하기도 쉬우며, 천천히 탄수화물(carbohydrate)을 소화시켜 배가 쉽게 꺼지지않게 합니다. (You’ll stay fuller longer after a meal: 식사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대하는 뿌리채소 들을 보면, Onion(양파), Sweet potato, Turnip, Garlic(마늘), Ginger(생강), Radish(무), Potato, Daikon을 들 수 있습니다. Daikon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무 또는 왜무로 불리는데 동아시아에서 재배하는 커다란 흰무로, 큰뿌리라는 뜻의 대근(大根)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우리가 단무지라고하는 다꾸앙(Takuan)은 일본무 Daikon으로 만드는데, 소금과 설탕, 식초등에 절여 만듭니다. 김밥에도 들어가고 짜장면이나 짬뽕먹을때 항상 같이 따라나오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부식중 하나입니다. 일본사람들도 다꾸앙을 부식으로 먹거나 차를 마실때 간식(snack)으로 먹기도 합니다.

“Turnip”은 “순무” 또는 “무청”으로 불리는데, 동그랗게 생겼으며 햇빛에 가까운 줄기부분은 자주색을 띠기도



하는데, 속은 하얗습니다. 기다란 줄기도 먹습니다.

감자는 식물학상 줄기(stem)로 분류되지만, 뿌리채소로 명단에 올라있는데, 땅속에 있는 식물의 부분을 (뿌리건, 줄기 건 상관치않고) 먹으면 뿌리채소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과학적인 분류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weet potato는 뿌리입니다. 감자를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감자는 (eye)에서 싹이 돋아나는데, 싹이 돋아난 감자를 “sprouted potato”라고 합니다. 독성분이 있어 그곳을 잘라낸후 요리하던지 싹이 너무 많이 났으면 버리는게 좋습니다. 싹, 눈, 싹이트는것을 “sprout”이라고 합니다. 싱싱한 채소류를 많이파는 식료품점(Grocery store)인 “Sprouts Farmers Market”

이 앨버커키지역에 있습니다. 양배추처럼 생긴 한입에 넣기는 조금 큰 채소인 Brussels sprout도 영양가 만점인데, Broccoli(브라콜리)와 마찬가지로 맛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채소류를 무치고 데쳐먹으면 입맛에 맞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Beet(Beetroot)는 붉은 자주빛의 무로 줄기도 붉은 자주색으로 영양가 높은 뿌리채소중



하나입니다. 채소중에 색이 진하고(dark) 잎이큰(leafy) 채소들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물(antioxidant)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금치(spinach)나 브라콜리(broccoli), 근대(chard)로 섬유질(fiber)을 보충해주는것도 좋겠습니다. “leaf”는 잎, 또는 나뭇잎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수는 “leaves”, “leafy”는 “잎이많은, 잎이 우거진, 넓은잎의, 잎모양의”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작은 잎사귀는 “leaflet”인데 간단한 인쇄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dark”는 어두운의 뜻도 있지만, “dark brown”(진한 갈색)에서 보듯, 색의 진한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light brown”은 연한갈색이 되겠습니다. “Tall, leafy trees shade quiet neighborhoods.” (키가 크고 잎이많은 나무가 조용한 이웃들에 그늘을 저주고 있습니다) “Make sure you eat plenty of dark, green, leafy vegetables.” (진한

녹색의 잎이많은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She looks happy and well nourished.” (그여자는 행복하고 영양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별로 먹고싶지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편식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결국은 음식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단것(sweeties)과 짠것(salty), 기름진것(fatty or greasy)을 피하고 여러가지 음식과 채소, 과일류를 골고루 먹는것이 최고의 건강비결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Moderation is the key.” (모든일에는 적당한것이 최고의 비결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New Mexico 주의 State vegetable은 예상하고 있듯이 Chile와 Frijoles pintos 입니다. Frijoles pintos는 Mexican food에 많이 들어있는 Pinto콩을 나타냅니다. Spain어로 Frijole(후리홀레) 또는 Frijol은 콩(bean)을 뜻합니다. Pinto는 영어의 Paint(색칠한)를 뜻하기 때문에, 글자그대로의 뜻은 “painted bean”입니다. 고추인 Chile는 식물학상 과일(fruit)에 속하지만, 요리법상 채소(vegetable)에 속합니다. 즉 과일과 달리, 생으로도 먹지만 찌거나 삶거나 볶아서 양파같은 다른채소와 요리해서 많이 먹기도하고, Pinto콩과 같이 많이 먹습니다.



요리를 나타내는 단어에 “cooking” 말고 “culinary”가 있는데, 사전에 보면 부엌(용)의, 요리(용)의 뜻입니다, Cooking보다는 넓은의미로 요리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준비과정, 요리(cooking), 접시에 이쁘게 담아 serving 하기까지의 전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the culinary art”(요리법)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ulinary school”은 요리학원으로 “cooking school”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My culinary skills are limited to boiling water.”는 물밖에 끓일줄 모르니 요리실력이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I’m not very good at cooking). “dish”는 식사때 음식을 담아 내놓는, 가운데가 좀 깊은 큰 접시를 말하며, 자기앞에 놓인 각자 음식을 담아먹는 약간 깊은 접시는 plate, 찻잔을 바치는 조그마한 접시는 saucer라고 하며 비행접시는 flying saucer입니다. “dish”는 요리, 음식의 뜻도 있어, “my favorite dish”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main dish”(주요 요리)에 곁들어 나오는 “side dish”. 흔히 반찬을 “side dish”라고 표현하곤 하지만, 서양음식엔 반찬이란 개념이 없기에 딱 맞는말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New Mexico는 State fruit는 없으며, State bird는 아시아시피 (Greater) roadrunner 입니다. Roadrunner는 시속 약 20 마일의 속도로 달리며, 도마뱀(lizard), 방울뱀(rattle snake), 쥐(mice), 스코피온(scorpion)등을 잡아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필

아시안게임과 나의 대한민국

박인순

(Sue Cleland)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권사

40년의 미국 생활에도 변치 않는 나는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나는 울고 웃는 변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씻지 못할 큰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게임에서 이기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격해서 손이 터져 나가도록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지르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설레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서 그 게임에 지면 금방 가슴이 벌렁거리며 혈압이 오르며 열이 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앓았다 눕기를 반복하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 뜯었으며 안정되지 않는 며칠이 지나곤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새벽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아시안게임과 같은 시간이어서 이 역사적인 아시안게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예배를 나중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가슴 뛰게 했으며, 무엇이 나를 지배하여 대한민국이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힘든 날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내 방식대로의 나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또한 내 나라를 떠난 미안함 이었습니다. 10월2일 새벽에 일본과 한국의 농구 게임이 있었습니

다. 우리나라가 73:88로 졌을 때 난 너무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일본만은 이기고 싶었습니다.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며 혼자말을하며 끝까지 응원했지만 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혼자 화를 내며 그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분한 마음은 몇칠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해지기전에 풀어야했지만 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선수중에 한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약간 비웃는 웃음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그 일본선수는 그냥 좀 좋지 않게 웃었을텐데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는 그 웃음이 용서가되지 않았었습니다. 비웃음으로 보였기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속상해서 울고 있을 때,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서 “Honey 아직도 많은 게임이 남았으니깐, 다음 것에 이기면 돼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만 우세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 똑똑하고 멋있고, 예쁘고 최고의 조건, 최고의 힘이라면서 나를 달래주었지만 내 귀에는 그런 말이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나는 우리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 일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는 게 싫어요! 알겠어요?” 하며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정말 크리스천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 용서의 구함은 오래가지 못하며 금방 무너

져 버렸습니다. 이번엔 일본과 한국의 축구게임에서 일본에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으며, 1분 1초를 숨죽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며 일본에 이기게 해주세요. 철없는 아이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역전 골이 터졌습니다. 역전 골이 터진 그 순간에 우리 한국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잠깐 기도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찡하며 나는 그 선수에게도 감사하며 하나님께도 감사드렸습니다. 나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발 1골만 더, 1골만 더, 중얼거리는 중에 또 1골이 더 터지면서 2:1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금메달 땀어요) 너무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진 것도 너무 싫었지만 잠을 못 이루고 속상했지만, 그렇게 울며불며했지만, 일본과의 게임에는 달랐습니다. 진정 일본에는 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울분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기에 정말 나도 나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글썬요? 역사 속에서 배웠던 그 어린 시절이 잊히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옛날 일본인들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일본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일본에 이기고 싶습니다.

한국이 금메달 42개, 동메달 89개, 은메달 59개. 우리 대한민국 총 메달 190

개를 짖어요. 엄청 자랑스러운 이번 아시안 게임을 시청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많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올 때는 1970년 중반이었어요. 그때 나라는 매우 가난했고 환경도 낮았고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물어볼 때, 중국 사람이니? 아니면 일본 사람? 이냐고.. 그럴때마다, “나 한국 사람이야.” 말해주면 “그런 나라도 있어?” 하며,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너희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하며 무시하며 놀렸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엄청 화가 났지만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미국 땅에 감사드리며 나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이 미국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덕을 쌓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는 강대국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힘 주어 떳떳이 내 대한민국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음식도 자랑하며, 머리 좋은 아이들, 예쁘고 착한 우리나라 아이들도 자랑하며, 종교, 드라마, 인간관계 따듯함을 소개하며 많은 미국인, 외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의 남편 (Bob)은 모든 것이 대한민국편, 내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내편이 되었다는 말은 항상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한국인 아내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에게도 항상 감사한다면서요. 어린나이에 결혼해 한국을 포기하며 미국에서 살아온 나를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냐면서 고맙다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나는 당신 (sue)에게 평생 빛진자라고 말한답니다. 정말 고마운 표현이지요. 하지만 난 남편께 감사한답니다. 이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70년대에 이 미국 땅

한국소식

2022년 아시안 게임

2022년 아시안 게임(영어: 2022 Asian Games) 대회는 원래 2022년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범유행의 여파로 인하여 1년 연기된 2023년에 열렸다. 그러나 대회의 공식 명칭은 바뀌지 않고 2022년 아시안 게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2023년 9월 23일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은 10월 8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축제인 아시안게임은 이제 3년 뒤 일본 나고야에서 다시 막을 올리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총 190개의 메달을 수확해 개최국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2년 아시안 게임 메달 집계

순위	국가				합계
1	 중화인민공화국	201	111	71	383
2	 일본	52	67	69	188
3	 대한민국	42	59	89	190
4	 인도	28	38	41	107
5	 우즈베키스탄	22	18	31	71
6	 중화 타이베이	19	20	28	67
7	 이란	13	21	20	54
8	 태국	12	14	32	58
9	 바레인	12	3	5	20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18	10	39

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살고 있답니다. 70년대 그때는 이곳에서 영어도 잘 못 해 고생하며 한국 사람, 한식 등의 그리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내 대한민국 선수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면 이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네요.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 고맙다며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대한민국!

앞으로도 더욱더 강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삶 속의 모든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며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내년 올림픽, 꼭 이기세요”

또한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스토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선수들, 너희들 수고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너희를 고맙고 “사랑한다이” (I Love you all) ■

수필

존귀하신 분들...

벌써 10여 년 전쯤입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사시던 80을 넘기신 장인어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런저런 답답한 소식이 들려와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정수 장로님. 6·25 때는 켈로 부대에서 나라를 위해 게릴라로 싸우셨고 영문학을 전공하시어 미 8군 재무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1975년, 43세의 연세에 1남 2녀 가족을 데리고 필라델피아로 이민하시어 정말 이북(황해도) 출신 강과 열심으로 사업을 이루시고 불같이 사셨습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과 탁월한 유머 감각 및 친절하시고 인정이 넘치시던 분...

뉴욕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편찮으신 장인어른 뵈러 필라델피아 처가댁에 들어섰는데 초췌하신 장인어른 뵈는 순간 그만 와락 끌어안으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초점 잃은 눈동자, 아기처럼 걷는 모습에 언어도 어눌하시어 이미 환자의 모습이 역력하셨는데 1990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며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떠나기 전 장모님께 제가 기도해 드리고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불편하시므로 짧게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계셨는데 측은하신 모습 마음이 저렸습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를 4절까지 크게 부르고 장인어른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대략 10여 분간 큰 소리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보니 짧게 기도해 달라시던 장모님이

어깨를 들썩이며 정말 영영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돌아와서 한 달쯤 후 전화 드리니 장모님 말씀하시기를, "윤 목사가 기도해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렀습니다. 두어 달 후 다시 뉴욕 세미나 마치고 처가댁에 가니 장인어른께서 100여 미터 떨어진 길가까지 나와계셨는데.. 아! 그동안 회복되시어 달라지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눈동자도, 걸음도. 표정도 등등... 모습이 참으로 아프시기 전처럼 좋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윤 목사가 기도해서 아버지 낳았다"고 말씀하시며 감사해하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 후 잘 지내시다가 작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인어른/장모님! 어려운 시대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평생에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시고 평생에 주의 종들을 선대 하시고 근면 성실히 사시며 많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도우신 위대한하신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장모님은 "3대에 걸쳐 우리 집안에 목사, 선교사 그리고 장로가 34명이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감사하게도 2주 동안 쿠바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설적인 선교사 정경석 목사님(84세), 한금자 사모님(82세), 토론토 공항에서 대형 선교 가방 8개 부치고, 업고, 끌고... 목사님 해병 ROTC

윤성열 목사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담임목사



(사진)정경석 선교사 부부

출신이신데 두 분 완전 부부 해병 같으셨습니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시며 쿠바에 10여 년간 매년 몇 차례씩 다니셨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한성깔 하시는데 ㅎㅎ 사모님은 아담하고 고우시고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웃으시는 표정 감동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학에서 가르치시며 40년 이상 사시고 선교하시며 신학교를 잘 세우시고 그리고 두 분 다 스페인어를 우리말처럼 유창하게 구사하시고 아들딸 둘 다 MIT에서 공부하고 명문가를 세우시고... 놀랍습니다! 목사님 텍사스 A & M에서 해양학 공부하시고 사모님 동아대 상대 출신, 정말 사모님 소녀같이 예쁘시고 늘 웃으시는 표정에 얼마나 민첩하시고 친절하신지. 연구 대상이라 할까요! 하바나를 비롯해 세 군데 교회를 방문하여 20여 분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분들, 이민 1세대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분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은 정말 감동입니다. 쿠바는 억수로 더웠고 환경은 열악하여 마치 한국 1960년대 같았습니다. 미국이

<26 페이지로 계속>

간증문

9988 234 란?



김준호

Plano Fairview 교회
장로

제가 지난 호(9/10월호 광야의 소리)에 기고했던 내용 중에 알칼리성 식품들을 많이 챙겨 드시고 산성식품들을 조금씩 줄여서 또는 조정해서 드시는 것이 9988 이 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식품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칼리성 식품들 중에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먹고 있는 오이 (cucumber)가 제일 강한 알칼리성 식품 중 하나이고 토마토가 두 번째 group에 속하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고 지낸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 습관을 깨 버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서 어떤 의사님이 환자들을 아주 잘 돌보아 주어서 유명해 진 분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의 병을 못 고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아는 분이 딱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은 Don Livengood이고 두 번째 분은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아현성결교회 다닐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유복형 선생님이십니다. Don은 유엔군 보병으로 의정부 부근에서 근무했는데 저의 작은 형님은 유엔 경찰로 역시 의정부 부근에서 일을 했었는데 우연히 두 분이 가끔 만났다고 합니다. 형님의 주선으로 제가 Don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Don은 답변 편지를 보내고 제 편지에다가 수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좋겠다고 해주면서 그분이 제대할 때까지 늘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제대하기 전에 자기 미국 주소를 주면서 혹시 미국에 올 경우에 연락하라고 말해 주셨지요. 그는 California

Hugues Aircraft 회사 직원으로 다시 복귀하겠다고 말해 주었지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Don 에게 언제 LA 공항에 도착한다고 알려 드렸고 공항에서 만나서 자기 어머니 집이 Seal Beach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지내고 뉴욕에 있는 대학교로 가기로 계획을 짰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Livengood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몇 군데 관광을 다니고 유복형 선생님에게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고 네가 지금 미국에 왔느냐고 묻고 제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뉴욕은 겨울에 춥고 LA에도 대학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시 대학을 찾으라고 강권했고 임동선 목사님 댁 위층에 방이 많으니까 자기가 주선해서 거기서 지내도록 알선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뉴욕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성에 있는 여러 대학원을 색출해서 USC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큰 문제는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크나큰 두통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외국 학생들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들을 했었지요. 저도 열심히 LA downtown 근방에 식당들을 찾았지만 실패했고 임동선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분이 LA 공항 근방에 여러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직장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댁에서부터 공항 근방을 여기 저기 걸어서 찾아서 다녔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 했던 엄청난 일이 나타났습니다. 큰 건물이 있었는데 TRW Semiconductor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정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서 안내원에게 제 이력서를 주면서 job 을 찾겠다고 했더니 제 이력서를 보고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Department manager, Wayne Shaw 가 나와서 저와 인사하고 자기 직무실로 함께 가서 이력서 내용을 훑어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Did you make a transistor and diode in South Korea?” “Yes.”

“Can you explain how to make them to me now?”

저는 저 자신이 모든 실험을 원자력 연구소 전자공학 실에서 모든 필요한 계기들을 구입하고 재료들도 사고 측정기들도 사서 사용했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지요. Wayne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TRW에서 2GHz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리는 회로를 개발한다고 Proposal을 냈는데 Final report 제출하는 날이 3개월밖에 안 나갔는데 증폭 회로가 전연 동작을 안 해서 크게 고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Wayne은 또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Do you know some of microwave theory?” 저는 “Yes”라고 대답했고 Wayne 은 그가 당면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과목을 대학 다닐때 들었기때문에 안다고 했더니 Wayne 이

“Can you start work from tomorrow?” “No, I can’t” “Why not?”

“I walked from near L A downtown to here.” “What? did you walk? Oh my God ! “

그는 잠시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며 한숨만 쉬다가 "I have an idea" 하더니 회사 PA system을 켜고 회사 전체에다가 "내가 직원을 한 명 채용하려는데 이분의 주소는 어디인데 자동차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든 그 근방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제 Office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방송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2GHz transistor를 어떻게 Amplifier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출한 Proposal의 Final report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가지 회로를 꿈꾸거리며 다 시도했지만 다 실패해서 큰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30분 넘게 여러 가지 해 봤던 것들을 말해 주고 있는데 한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 주소를 다시 물어보더니 제가 기거하던 임동선 목사님 댁에서 서쪽으로 세불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Wayne은 큰 환성을 부르며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월요일부터 그 직원 집 앞에 아침 7시 15분에 기다리겠다고 해서 TRW Semiconductor에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지요. 야 !!! 식당 설거지 일을 찾으며 못 찾아서 많이 고민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이 저에게 올 수 있단 말입니까 !!! 저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있었다고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Wayne, 이 시도했던 모든 회로를 모두검사해 보니까 한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회로를 고쳐서 시험해 보니까 Amplifier가 동작하더라고요. 그래서 Wayne 사무실로 뛰어가서 제 회로를 검사해 보라고 했더니 "동작해?" 하면 서 실험실에 와서 직접 검사하고 Wayne은 말하기를 "You save my neck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준호

가 새 회로를 개발했다"고 크게 칭찬했고 방송했지요. 그 후부터는 직원들이 다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Break time에 "준호야 너 커피 마실래?" 또 다른 직원은 "오늘 점심 내가 살게 함께 나가" 등등 대접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USC 대학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TRW job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지가 않아서 몇일간 꿈꾸거리다가 Wayne office로 가서 제 사정을 말했지요.

USC 대학교에 등록해야 하는데 내 job이 좋아서 그만두고 싶지가 않다고요. Wayne 대답은 또 한번 놀랐어요.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분 말은 "네가 등록하고 낮에 강의가 오후 3시쯤에 끝나면 회사에 와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매 토요일 마다 8시간 일하면 자기는 준호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고 싸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떡 입니까 !!! 직장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USC 대학에 등록하려고 Registration Office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더니 모든 외국 학생들은 English 101 course를 꼭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고 제것을 접수를 안 해 주었어요. 영어 101을 들으면 또 102를 들어야 되게 Plan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늘이 노래 지었지요. 그래서 Foreign Student Adviser에게 찾아가서 영어 101을 skip할 수 있도록 사인 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한국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왔느냐고 물어서 서울대학교라고 했더니 영어 101 안 들어도 된다는 사인을 해주어서 무사통과해서 영어 101을 안 듣고 전공과목만 택할 수 있었지요. 등록을 마치고 그 Adviser에게 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어떻게 사인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 봤지요. 그분 대답이 몇 개월 전에 내가 다녔던 학교 학생이 와서 영어 101 course를 안 듣게 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

을 해서 사인 해 주었는데 그 후 그 학생은 모든 전공과목 모두 A 학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네 것도 사인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Thank you very much했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쌓이고 싸인 가운데 저는 저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의 단비들임을 확신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막힌 우연 아니면 누구나 경험 하는 일들이 아니겠느냐고 비꼬는 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며 9988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존귀하신 분들'에서 계속>

천국입니다. 처음 방문 신고식 톡톡히 하였지만 무사히 생환(?)하였습니다. ㅎㅎ 그동안 스페인어를 빠르게 공부한 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모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땀과 수고는 정말 소중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모님 89회 생신에 아내가 친정어머니 뵈러 필라델피아에 갑니다. 먼 길이지만 꼭 돌아올 것입니다. (ㅎㅎ) 2년 전 아내가 장인어른 뵈러 갈 때는 마침 시간이 되어 한 달을 다녀왔는데 그 멀리 갔다가 다시 제 곁에 돌아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여 제가 장미꽃 3더즌을 사서(보통은 한 더즌) 가슴에 안고 공항에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힘들어서 한국 친정에 가서 7개월 동안 개기시어 결국 목사님이 가셔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빠지는 아내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white peach 6개를 샀습니다. 오늘따라 장인어른 생각이 납니다. ■

과학상식

반도체란 무엇일까?

(제1 편)

이기영

Intel /반도체 제품 개발 연구원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서기 2000년 이전에는 간혹 뉴스에서 들어보거나, 전기-전자를 전공한 과학도 또는 공학도에게만 편하게 들려지던 반도체라는 단어가 이제는 백열전등보다도 더 흔해 빠진 단어가 되어 버렸다. 특히 2022년에는 갑자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돌던 이야기, 반도체 부족 현상 그걸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면서 이제는 흔해 빠진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 듣고 말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자동차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동차 실물을 보며 그 궁금증이 사라진 것과는 달리,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을 뒤져도 그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처럼 쉽게 이야기할 수는 아직도 없는 것 같다.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규모가 커진 것도 마찬가지로 지면 한두 페이지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시간 나는 대로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아직도 현직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서서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핵심이다.

이제는 백열전등조차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하물며 전기가 없는 세상을 감히 상상이나 하여 보았는가, 인터넷이 조금만 끊겨도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텐데... “LED 전구”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이다. 첨단 칩을 만들거나 설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반도체야 하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CPU, 스마트폰의 구동칩 등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광반도체”, “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러야 더 정확한 표현임에도 틀림없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반도체 칩에서는 제외되므로 일반인도 이 LED를 반도체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특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IC (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라는것은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일반적으로 수천만 개) 연결하여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자회로를 기판에 새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반도체 하고 부른다. 이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CMOS라는 반도체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므로, 반도체라는 너무나 포괄적인 단어보다는 “반도체 칩”이라는 개별의 가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고 접근하기가 좋아서 “반도체 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보고자 한다.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 “반도체 칩”이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 있

을까? 그리고 각각의 가전에는 얼마나 많은 “반도체 칩”이 사용될까? 개수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근하여 보자.

잘 생각해 보니 은근히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 1970년대에 사용하던 물건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리모컨 스위치와 접목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순수하게 반도체 칩이 없는 것은 좀 어려워서 시계 기능과 리모컨 기능을 배제하니 조금은 찾을 수 있었다. 모든 건전지를 넣는 시계 또는 전기를 쬐어야 보이는 시계, 아라비아 숫자로 보이는 시계는 단순하지만 전부 반도체 칩으로 구동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태엽을 감는 시계 (골목 시계이든 벽시계이든)이외의 모든 시계는 전부 반도체 칩으로 구동된다.

하여간 선풍기(Fan), 믹서기(Blender), 반죽기(Mixer), 진공청소기, 모니터가 달리지 않은 냉장고 등, 주로 모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시계 부분을 제외하면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그 외에는 컴퓨터, 모니터, TV, 스마트폰, 게임기 등은 그 속에 수많은 반도체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반도체 덩어리들이다.

아직도 글이 서론인 관계로 “반도체 칩”으로 넘어가기 전에 칩이란 글자를

때고 그냥 반도체 그게 도데체 뭔지 한 번 더 알아보자.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만도 하니 조금 어렵게 들어가 보자.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기능을 결정하고 성능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접해서 익숙한 것이 반도체지만 정작 반도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때로는 IT 기술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전자제품 속에서 온갖 일을 해내는 재주꾼으로, 첨단 산업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소재로 통하는 등 천의 얼굴을 지닌 반도체의 본모습을 살짝 들여다 보자.

어떤 물체는 전류가 통하고 어떤 물체는 통하지 않는다. 전류가 통하는 성질에 따라 물체들을 도체와 부도체로 분류한다. 이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또는 양쪽 모두에 속하는 물체가 바로 반도체다. 전류가 흐르는 동시에 흐르지 않는 물체가 과연 무엇일까? 엄밀히 말하면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흘렀다가 말았다가 하므로 인간은 이를 이용해 엄청난 일을 해온 것이다.

그, 비밀은 바로 자유전자에 있다. 전류(電流, Electric Current)는 단어의 뜻 그대로 전기의 흐름을 말한다. 더 정확히는 -극의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인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류다. 전자는 보통 때는 원자에 갇혀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 하고 자유전자가 바로 전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전자가 있는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고 없는 물질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특성을 지닌 물질이다. 반도체

체는 평소에는 자유전자가 없어 부도체처럼 행동하지만 열(온도)을 가하거나 특정한 불순물을 넣었을 때 자유전자가 발생하여 도체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주기율표의 4족 원소인 원소형(elemental) 반도체와 4족 원소에 3족, 또는 5족 원소를 결합한 화합물 반도체로 나뉜다. 원소형 반도체의 대표 격인 규소(Si, 실리콘)는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소다.

반도체의 시작은 무엇일까? 트랜지스터이다.

아까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전자제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반도체 시대의 시작은 전자혁명이라고 이르는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랜지스터는 transit resistor의 조어로 ‘변화하는 저항을 통한 신호 변환기’라는 뜻이다. 미국 벨연구소의 월터 브래튼,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이 1948년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만들어 이 공로로 1956년 노벨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사진) 미국 벨연구소의 (From Left) 존 바딘, 윌리엄 쇼클리, 월터 브래튼 (1948)

트랜지스터가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전자제품에 일대 혁명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려면 진공관을 이용해야만

했다. 크고 비싼 데다 수명도 짧았던 진공관과 달리 트랜지스터는 크기가 작고 만들기도 쉬웠을 뿐 아니라 가격도 무척 저렴했다. 트랜지스터는 순식간에 시장을 휩쓸어 진공관을 퇴출시켰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들은 이전보다 성능은 높으면서 크기는 작아졌다.



(사진) 트랜지스터의 여러종류

반도체 시대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다. 집적회로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기, 콘덴서, 코일 등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것들을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 부착시킨 전자소자 시스템이다. 즉, “반도체 칩”인 것이다.

최초의 집적회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TI)의 잭 킬비가 1958년 제작했다. 킬비의 집적회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초보적인 시스템으로 반도체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1개, 저항 3개, 커패시터 1개를 배치한 것이다. 킬비의 목적은 부품을 관련된 부분끼리 모아서 전자제품을 작게 만들려는 것이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집적회로는 등장하자마자 전자공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소형화와 고성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집적회로로 잡을 수 있게 되자 여러 기업들은 앞 다투어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트랜지스터 수천만 개가 손톱만 한 칩에 집적된 대규모 집적회로는 물론이고 2차원을 넘어 3차원 웨이퍼에 집적시킨 3D-IC까지 등장했다.

(다음호에 계속) ■

기행문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 사장
Dae Han Tour US
Dallas TX

찬 바람이 불 때쯤이면 가을 하늘을 생각한다. 푸른 하늘을 뚫고 붉게 물들어 가는 잎새들을 보면, 웬지 서글퍼지고 허전한 마음이 앞선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손을 놓고 멍때릴 때가 있지 않을까? 해가 바뀌면 새해의 가득 찬 계획과 희망이 부풀고, 반이 지나갈 때쯤 자녀들의 학비와 대학준비에 정신없고, 가을 문턱에 들어설 때쯤에야 잠시 창밖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차창을 바라보고 있을 때, 7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손님이 들어오셨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약혼녀를 찾아 폴란드로 데리러 간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고희의 연령임에도 100세를 달려가는 열정이 있으니, 사랑엔 국경이 없다 했나...? 세상은 열려있고, 사랑은 위대한 것임은 틀림없다. 꼭 모셔 오셔서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다가오는 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매혹적인 도시 “뉴올리언스”를 찾아 떠나보려 한다.

뉴올리언스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 남동부 지역의 멕시코만과 미시시피강을 따라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라틴 아메리카와의 상업/무역 중심지로서 남부 최대의 상공업, 금융의 도시이자 미국에서는 중요한 무역 도시이다. 1682년 프랑스의 탐험가 르네-로베르 카블리에가 뉴올리언스에 도착했으며, 오대호 미시시피강 유역을 프랑스 영토로 삼았다. 1710년 후반, 대서양 횡단 노

예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유입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은 화물이 그 당시에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1718년에서야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당시 루이 15세의 섭정이었던 오를레앙 공작 필립 2세와 오를레앙의 이름을 따서 Nouvelle-Orleans 명명되었으나, 아쉽게도 영국과 7년 전쟁 패배 후 1763년 파리조약으로 스페인 제국에게 식민지를 양도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진 루이지애나 주민들은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불만을 품게 되고, 나아가서는 반대 시위를 벌이며 대항했고, 폭등을 일으키는 반란의 연속 끝에 1800년, 프랑스가 다시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여러 번의 긴 전쟁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뉴올리언스를 통치하는데 쉽지 않았으며, 다가올 영국과의 영토확장 전쟁을 준비하면서 골칫덩어리인 뉴올리언스를, 1803년 4월30일 미국에 1,500만 달러에 매각했다. 이로써 미국은 역사상 가장 현명한 거래이자 즉흥적인 최대 영토가 2배나 늘게 되었으며 서부 개척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스페인의 식민지하에 오랜 난관을 헤쳐 나온 프랑스인, 스페인, 라틴계 그리고 노예무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흑인 과 유색인종이 많은 이 지역을, 미국 역시도 루이지애나 영토를 통치하는 것이 획득하는 것보다 어려웠다.

뉴올리언스는 모피/설탕 상품을 활발

하게 무역하여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805년 첫 증기선이 미시시피에서부터 뉴올리언스 항구에 도착했다. 그 당시, 뉴올리언스는 무역항구 도시로 2번째로 번창했으며 인구도 4번째 큰 도시가 되었지만,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으로 몸살을 다시 한번 앓아야 했다. 또한, 뉴올리언스는 미국 혁명가들에게 구호품을 운반하고 군사 장비를 보급하는 중요한 요새 항구였으며, 앤드루 잭슨이 지휘한 뉴올리언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는, 이후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를 대승으로 이끈 앤드루 잭슨의 동상을 세워 영웅의 업적을 알렸으며, 오늘날 \$20짜리의 지폐에 새겨지게 됐다.



전쟁이 끝나자, 항구를 이용하는 무역이 늘자 뉴올리언스가 더욱 번창하고, 부유층의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오페라와 극장이 들어서고 “아메리카의 파리”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1,900년대에 이르러 흑인문화의 중심지인 재즈가 탄생하여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루이 암스트롱”이 이곳 출신이다. 걸쭉한 목소리에 색소폰을 울리며 들려주는 그의 매혹적인 노래와 음악 선

울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뉴올리언스 프렌치쿼터에는 18세기부터 조성된 프랑스/스페인의 특색있는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흑인 남부식 요리가 혼합된 “크레올 요리”의 본고장, 일명 “케이즌 음식”으로 유명하다.

프랑스계 아카디안 정착인들의 도넛인 “베네(Beignet)”는 네모난 반죽을 부풀린 후 설탕 파우더를 듬뿍 얹어 먹는 도넛, 속은 솜처럼 부드러운 것 게다가 바삭하며 달콤해서 커피와 같이 먹으면 환상이다.

지역 특색 음식 중 또 하나는 검보(Gumbo) 스프, 삼겹살을 볶아 6~7시간 달인 수프에 닭고기/새우/게/굴 등의 해산물과 야채를 넣어 끓인 후 쌀밥에 얹어 먹는 유명음식 중의 하나, 가재 에투페(Crawfish Etouffee)는 내가 즐겨먹는 요리 중 하나이다. 가재를 발



라 매콤한 파프리카 고춧가루와 마늘과 버터로 볶아 양파, 피망을 넣고 끓인 후, 흰밥에 얹어 먹는 케이전 음식이며,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굴 숯불구이다. 그날 잡아 올린 굴에 버터, 마늘 치즈를 얹어 숯불로 은근히 구워내는 환상적인 맛이 일품이다.

뉴올리언스 프렌치 쿼터는 역사를 대표하는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건축물과 음악을 알리는 예술인의 거리로 가득 찼다. 해마다 2월이면 마디그라(Mardi Gras)의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2달 전부터 각 집에서는 축제의 장식을 집 앞에 진열하며 행사를 즐긴다. 마디그라의 축제는 로마 시대부터 즐기던 것으로 유럽/프랑스 이주민

들이 이어진 행사, 풍요로운 봄을 기념하던 다신교들의 축제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퍼레이드와 풍부한 먹거리로 전통을 이어가는 행사가 되었고, 해마다 약 85만명의 사람이 뉴올리언스 마디그라 축제에 참여한다.

눈과 귀가 즐거운 버번스트리트(Bourbon St), 로열(Royal St)과 프렌치맨(Frenchman St) 스트리트에서는 뉴올리언스 최고의 재능있는 음악가들이 즉석 연주를 펼치는 버스킹(거리)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재즈클럽과 라운지가 곳곳에 있어, 자연 공연을 들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인 잭슨 스퀘어, 농수산물의 재래시장 프렌치마켓,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인트 성당 등 거리마다 눈과 지갑을 열게 만드는 부티크에서의 쇼핑도 다양하게 흥미로웠다. 어느덧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활보하자니 피곤이 몰려든다. 저녁은 노을에 물든 재즈를 들려주는 증기 기관차를 이용해서 먹기로 했다. 미리 저녁 식사 티켓과 함께 구매해야 블루재즈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재즈 크루즈는 점심과 저녁 두 번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신선한 해물 요리와 강바람이 스며드는 와인 잔에는 어느새 낭만으로 넘쳐 버렸다.

오늘은 이층 버스를 타고 색다른 곳으로 달려가 보자. 내가 흥미롭게 가보고 싶었던 세계 2차 대전 박물관, 들어서면 입구부터가 80년 전으로 들어가는 항공이 있었다. 그 시대를 기억하는 다양한 영상 보도와 모형물까지도 입체적이고, 자세히 볼 수가 있었으며, 과거로 흘러가는 타임머신이었다. 다음 코스는, 예술품 전시장과 음식문화가 소개되는 매거진 거리를 지나, 뉴올리언스 시립 조각 공원(Sculpture Garden)에 들러 작품들을 감상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조각작품은 푸른 공원에 맞게 작가들의 영혼이 담긴 그들이 추구하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

었고, 치커리 커피 한 잔과 카페 베네의 한입이 피곤을 덜어주었다.



Plantation oak Alley

오후에는 1시간 떨어진 200년 전 역사의 현장인 옥엘 리 플랜테이션을 방문했다. 1800년 사탕수수 농장의 규모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장을 볼 수 있으며, 목장 뒤에는 300년 된 참나무가 펼쳐진 정원이 아름다웠다. 오늘날 뉴올리언스의 농장 표지물이 됐다. 이외에도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후마스, 로라, 세인트 조세프 등의 농장을 관람하며 식사와 투어를 통해 역사의 길을 걸어보자, 돌아오는 길에는 늪지대의 악어 호수 사파리 투어로 뉴올리언스의 낮은 늪지대를 관람하고 느껴보자.

1년365일 매 시각 바쁜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뉴올리언스는 프랑스,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문화가 서로 공존해 온 음악과 음식, 재즈의 본고향만큼이나 매력 만점 여행지이다.

달라스에서 차로 9시간, 항공으로는 1시간 35분의 거리 차이가 있지만 각자의 여행비용에 따라 미리, 예약과 계획을 해서 떠나야 한다. 가을부터 겨울을 나는 춘삼월까지는 성수기 시즌이고, 되도록 7, 8월은 무더위의 습한 기온에 피하는 게 좋다.

뉴올리언스는 영혼이 물드는 전설적인 도시이자, 사랑하기 좋은 도시로 여행을 적극 추천해 드린다.

100세대를 이어가는 요즘, 건강할 때가~~자.

글:송은숙/www.daehantour.com ■

Korean Churches in NM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
leabq.com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
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 김지수 전례부장: 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화, 오전), 성령기도회 (수, 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알버커키 Albuquerque</p> <p>건축/페인트 Painting</p> <p>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p>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RIMÓ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com</p>	<p>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p>	<p>이발소 미장원 Hair Cut</p> <p>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p> <p>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틀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부동산 Realtors</p> <p>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p> <p>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p>	<p>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p> <p>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p>	<p>자동차정비 Auto Repair</p> <p>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p>	<p>태권도 TaeKwonDo</p> <p>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p>
<p>리커스토어 Liquors</p> <p>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p>	<p>세탁소 Dry Cleaners</p> <p>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p> <p>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p>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p> <p>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p> <p>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p>	<p>주택융자 Loan Officer</p> <p>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p>	<p>한 의사 Acupuncture</p> <p>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p> <p>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p>
<p>식당 Restarant</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식당 Restarant</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식품점 Korean Grocery</p> <p>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p> <p>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중재서비스</p> <p>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회원/원예 Nursery</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p>호텔 Hotel</p> <p>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p>	<p>스시벅스(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p> <p>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치과 Dental Clinic</p> <p>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NAPA Family Dental</p> <p>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p>	<p>호텔 Hotel</p> <p>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p> <p>회계사 CPA</p> <p>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p>



Hye Young Yoon (윤혜영)
Fluent in Korean & English 부동산중개인

📧 Hye1231@gmail.com

📞 917-862-1782

Licensed Realto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산타페 Santa Fe</p>	<p>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치과 Dentist</p>	<p>미장원 Hair Salon</p>	<p>손톱미용 Nails</p>	<p>리커스토어 Liquors</p>	<p>식품 Korean Grocery</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리오란초 Rio Rancho</p>	<p>변호사 Law Firm</p>	<p>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p>	<p>치과 Dentist</p>
<p>공인회계사 ACC</p>	<p>리커스토어 Liquors</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p>	<p>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식당 Restaurant</p>	<p>클로비스 Clovis</p>	<p>화밍톤 Farmington</p>
<p>카페/ 선물 Cafe/Gift</p>	<p>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p>	<p>박성희/신속회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식당 Restaurant</p>	<p>상점 Store</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p>	<p>리커스토어 Liquors</p>	<p>식당 Restaurant</p>	<p>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병원 Clinic</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식당 Restaurant</p>	<p>광야의 소리</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p>	<p>식당 Restaurant</p>	<p>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3년 11/12 월호 발행일 : 2023.1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p>	<p>광야의소리 11/12</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p>	<p>식당 Restaurant</p>	<p>광야의 소리</p>	<p>스마트폰으로 광야의 소리를 만나 보세요. Voice.kumcabq.com</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치과 Dental Clinic</p>	<p>식당 Restaurant</p>	<p>광야의 소리</p>	<p>광야의소리 11/12</p>
<p>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p>	<p>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p>	<p>식당 Restaurant</p>	<p>광야의 소리</p>	<p>광야의소리 11/12</p>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ICHIBAN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HANMI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얼버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광야의 소리에
 광고를 올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Email
 또는 전화 (505)275-9021
 (광고담당:신옥주 A-1 Market)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